

연해주 지방의 연꽃 보전

- 자치체명 : 러시아연방 연해주지방
- 발표자명 : 페레포르기나 포리나 아르세니에흐 시립교육기관 제1종합학교
- 활동기간 : 2002~2004년
- 활동장소 : 연해주지방, 아르세니에흐시, 주니아 내츄럴리스트 스테이션
- 활동인수 : 15명

1. 실시결과

주니아 내츄럴리스트 스테이션에서는 연꽃의 재배방법, 연꽃의 재배 가능 환경 만들기에 대하여 연구 했다.

2. 발표요지

인간에게 있어서 연꽃은 보통 식물의 한 종류는 아니다. 이 식물은 매우 아름다운 자연의 몇 천년 역사를 머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이 식물이 생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호수는 천연기념물로서 등록되어 있다. 호랑이, 조선인삼 등과 함께 연꽃은 연해주 지방의 상징이 되어 있다.

환경학자에 의하면 이 식물은 환경상황에 예민하다. 연꽃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 때 혹은 수질환경의 변화의 금방 시들어 버린다.

연해주 지방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연꽃의 생육지이다. 이 식물을 미래에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르세니에흐시 부근에는 자연보호 구역으로 등록된 호수가 몇 곳 있다. 연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 많은 관광객이 꽃을 구경할 목적으로 방문한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아직 자연보호 구역으로서의 매너가 지켜 지지 않은 이유로 관광객이 돌아간 후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상당수의 연꽃이 부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티히(Tihiy) 자연보호지역의 관리인으로부터의 의뢰를 받아 우리학교 학생들이 “호수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팻말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활동만으로는 주위

의 사람들에게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가꾸자” 라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연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극동지방의 연꽃은 위스리스크(Usuriyskiy)지방, 브레인스키(Bureinskiy)지방, 니지네제이스키(Nizhnezeisukiy) 지방에 생식하고 있다. 연해지방의 연꽃은 주로 우스리(ussuri)강 지역의 남쪽과 중부지방, 프리한카이스카야(prihankaiskaya) 평야부, 하산스키(hasanskiy) 지방의 남부, 프탄틴(puytatin) 섬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키로프(kirovskii) 지방과 블라디보스톡시의 거주지역에서 인공재배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 일본, 한반도에서 분포 하고 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식물의 보호방법은 인공재배라고 인식되어 있다. 그 방법은 특히 코마로프(komarov) 연꽃의 경우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식물 인공재배가 옛날부터 실시되었고 그 재배방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연꽃의 생육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다. 2002년 아르세니에호시 주니아 내츄럴리스트 스테이션(연해주 지방)에서는 연꽃의 인공재배사업이 시작되었다.

스테이션에서 길이 14미터, 폭 9미터, 깊이 0.8~1.2미터의 연못을 파서 2002년 가을에 아르세니에호시의 북쪽의 호수에서 채취한 14송이의 연꽃을 심었다. 그리고 이 호수의 연꽃도 1980년대 당시의 관리인의 의해 인공재배 된 식물로서 많은 수가 자라서 현재에도 좋은 상태이다.

우리들은 심은 식물중에서 85.7%가 활착되었고 2003년 여름 4개의 꽃이 피었다. 더욱이 2004년에는 낙엽으로 덮여진 연못의 면적이 20% 증가해 9개의 꽃봉우리가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만든 환경 안에서 연꽃은 두 번의 겨울을 넘기고 순조롭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 내년에는 시의 댐 근처의 호수에서 재배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